

일찍이 정신분석가 에릭슨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야 말로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생산성을 경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의미가 개인의 인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위대한 생산입니다. 미래 인적자원 육성과 여성경제활동 참여 제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05년 12월 26일, 출산과 육아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속에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수준의 종합적인 육아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인생의 초기 6년동안 아이는 보편적이며 양호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며,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육아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이며 공정한 육아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10년, 세계 수준의 육아정책연구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첫째, 미래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연구, 둘째, 육아정책에 대한 지표개발과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정부의 선진 육아정책 유도, 셋째, 국내외 육아정책 관련 정보 생산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간사

육아정책연구는 다양한 계층과 이해가 상충된 관계자들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육아정책 관련자간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책수요자간 정확한 자료의 공유와 정보의 이해가 있을 때, 정책 관련 생산적 의사소통과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의 이해와 공유는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KICCE 육아정책포럼’은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연구과제와 정부의 주요 육아정책 현안, 그리고 육아정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안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주요 소식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KICCE 육아정책포럼’이 정책 자료와 소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정책수요자간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는 생산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정책연구와 관계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